

새로 나온 책

무감각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관심과 희망

은종일 TMI(Too Much Information)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낱발하는 오지라퍼들의 입을 다물게 만드는 마법의 단어가 있다. ‘안물안궁’이다. “안 물어봤고 안 궁금하니까 이제 그만 좀 하라”는 뜻이다. 이러쿵저러쿵 떠들기 좋아하는 호사자들도 이 말 앞에선 무릎 꿇기 마련이다. 상대가 귀찮게 하는 게 뻣속 깊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거두지 못하는 참견쟁이들이 반가워할 만한 책이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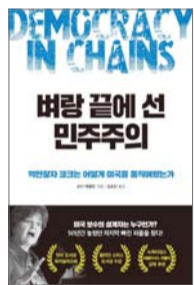
무관심의 시대

알렉산더 버트너 지음/김현정 옮김/나무생각

저명한 정신의학자인 저자는 우리가 무관심과 체념으로 일관하면 세상은 더욱 궁핍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다. 그는 “우리가 삶의 사실들에 응답하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미완의 사실들 앞에 서게 된다”고 말한다. 책은 최근 이기적 삶의 태도라는 주제에 휩쓸려 사람들이 외면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책임, 기여, 희망, 사명이라는 삶의 가치들이야말로 인간의 숙명이자 존재의 의미라고 강조한다. 세상에 매일 고통스러운 일과 부당하고 무자비한 일들이 벌어진다.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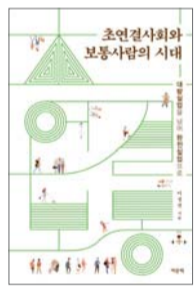
혹한 노동 환경에서 오늘도 누군가는 깔려 죽고, 떨어져 죽고, 질식해 죽는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며 수수방관하고 있다. 모두가 모두에게 무관심한 시대라지만 우리 인간만이 그 고통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한 명의 개인이 세상을 바꿀 순 없다. 그러나 자신이 속한 세계는 변화시킬 수 있다. 눈길을 주지 않으면 그 무엇도 현실이 되지 않는다. 무감각한 우리를 다시 깨어나게 하는 건 삶에 대한 관심과 희망뿐. **264쪽, 1만4800원.** /김현정 기자 hjk1@

벼랑 끝에 선 민주주의



역사학자인 저자는 극우파 운동을 기획·조직한 경제학자 제임스 맥길 뷰캐넌과 이 운동의 자금줄이 된 기업이 찰스 코크를 중심으로 극우 보수주의자들이 미국을 망가뜨린 과정을 낱날이 까발린다. 책은 극우 학자와 거대 자본가가 손잡고 민주주의와 자유, 헌법을 어떻게 왜곡해왔는지 보여줌으로써 민주주의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524쪽, 1만9000원.**

초연결사회와 보통사람의 시대



대량실업을 넘어선 완전실업의 시대다. 과연 절망적이기만 할까. 대량실업은 모든 사람이 지긋지긋한 노동에서 해방된다는 말이다. 자동화와 무인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마당에 실업 자체를 막을 순 없기에 인공지능 로봇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누리자고 말한다. 저자는 ‘노동’이 사라지고 자율적이고 보람있는 활동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사회가 온다고 전망한다. 엘리트가 지배하던 시대에서 일반 대중이 주도하는 시대로의 변화. **352쪽, 1만8000원.**

한 사람을 위한 마음



“자신 없으면 자신 없다고 말하고 가끔 넘어지면서 살고 싶다.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말하고 살 것이다” 작가는 천천히 흘러가는 삶을 들여다보는 파스하고 섬세한 눈길을 가졌다.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상실의 아픔을 지니고 있다. 이들은 서로 만나 상처와 미안함을 주고받는다. 때로는 상대를 미워하기도 하지만 끝내는 은근한 온기를 남긴다. 상실과 외로움 속에서도 절망에 빠지지 않고 희망을 발견해내는 인물들을 통해 우리는 어느새 위로받는다. **304쪽, 1만3000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28 | 해질 / 17:14

12월 2일 (월) 음력 : 11월 6일

수도권 날씨 **-2 ~ 4°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지역별 날씨: 연천 -4/4, 동두천 -3/4, 가평 -3/4, 파주 -4/4, 서울 -2/4, 양평 -2/5, 인천 1/4, 수원 0/4, 용인 0/4, 평택 -1/5, 백령도 2/5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인천공항 수하물처리용량 26% ↑

(2터미널)

무결점 확장공사, 성공적 운영개시 수하물처리시설 총연장 53km 심야시간 작업, 여객 불편 최소화

인천국제공항은 제2터미널의 수하물처리시설 확장 공사가 완료돼 시간당 처리 용량이 26% 늘어났다고 1일 밝혔다. 공사 완료에 따라 2터미널의 수하물처리시설 총연장은 42km에서 53km로 늘었고, 시간당 수하물 처리 용량은 5400개에서 6800개로 증가했다. 수하물처리시설은 기계, 전기, 통신설비, 컨베이어벨트 등 다양한 시스템이 연계된 공항 운영의 핵심시설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29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수하물처리구역에 마련된 행사장에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수하물처리시설(BHS) 확장 운영 개시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인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대한항공, 한국공항, 건설시공사 및 감리사 등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수하물처리시설(BHS)의 확장공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인천공항의 수하물처리용량이 확대되고 수하물처리시설의 안정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시설 확장으로 2터미널 수하물처리시설의 총연장은 기존 42km에서 53km로 11km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시간당 수하물 처리용량은 기존 5400개에서 6800개로 26% 가량 크게 증가되었다.

인천공항공사는 증가하는 여객수요에 발맞춰 지난 2017년 9월부터 제2여객터미널 수하물처리시설 확장 공사를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왼쪽 여섯번째)이 지난달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수하물처리구역에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수하물처리시설의 성공적인 확장 운영개시를 알리는 스타트 버튼을 누르고 있다.

추진해 왔다. 주요 실적은 ▲수하물 분류라인 확장 ▲조기수하물저장소(EB S) 증설 ▲수하물 이동 터널 확장 등으로, 여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로 심야시간을 활용해 공사가 진행되었다.

또한 올해 8월부터는 1만 3000여 명의 인력을 동원하고 총 11만 개의 테스트용 수하물을 사용해 총 86회에 걸친 시범운영을 진행함으로써 확장된 수하물처리시설의 무결점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했다.

특히 서울지방항공청은 본 사업의 관할 기관으로서 인·허가 행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고, 매일 본 건설 현장의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

뿐만 아니라 공사는 관계기관의 정기적인 점검과 철저한 인터페이스 관리로 26개월간의 공사기간 동안 단 한 건의 안전사고 발생 및 단 한차례의 오류도 없이 수하물처리시설의 무결점 확장 운영을 달성할 수 있었다.

수하물처리시설은 기계, 전기, 통신설비, 컨베이어벨트 등 다양한 시스템이 종합적으로 연계된 공항 운영의 핵

심시설로, 기존 수하물처리시설의 운영을 지속하면서 새로운 시설을 추가로 확장하고, 확장된 시설을 기존 시설과 통합하는 작업은 쉽지 않은 과업으로 분류된다.

특히 해외 선진공항의 경우에도 수하물처리시스템의 확장공사 및 서버 업그레이드 과정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으나, 인천공항공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수하물 처리 정밀도로 입증된 공항 운영 노하우와 관계기관의 협조에 힘입어 수하물처리시설의 무결점 확장공사와 성공적인 운영개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수하물처리시설 확장공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인천공항의 수하물 처리용량이 확대되고 수하물처리시설의 안정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며 “앞으로 인천공항공사는 지속적인 시설확장으로 인천공항을 이용하시는 여객분들께 안전하고 편리한 공항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인천=백용찬 기자 wsac114@metroseoul.co.kr

특례사업 3곳 추가... 광주 민간공원 속도

사업 대상지 6곳 협약 체결 연말까지 사업 시행자 지정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3곳의 우선 협상 대상자와 추가 협약을 맺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10개(9개 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 중 일곡·운암산·중앙2지구 등 3개 단지의 우선 협상 대상자와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일곡공원 우선 협상 대상자는 이지건설, 운암산은 우미건설, 중앙2지구는 호반건설이다.

광주 민간공원 사업과 관련해 현재까지 협약을 체결한 곳은 지난달 22일

마곡(호반베르디움)·봉산(제일건설)·신용(산이건설) 등 3곳에 이어 모두 6곳이다. 남은 단지는 수량(오렌지이앤씨)·송암(고운건설)·중앙1지구(한양건설)·중외(한국토지신탁) 등 4곳이다.

협약 체결 후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면 한 달 이내에 토지 보상금 5분의 4 이상을 현금으로 예치해야 한다.

중도 해지를 막으려 예치금의 10%를 보증금으로 내야 한다.

시는 나머지 단지별 우선 협상 대상자와도 연말까지 협약 체결과 사업 시행자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자만 준비되면 곧바로 일괄 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중앙공원은

‘업체에 결격 사유가 없을 시에는 협약 체결에 문제가 없다’는 법률 자문을 토대로 호남건설(중앙2지구)에 이어 한양건설(중앙1지구)과 협약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호남고속도로와 인접해 소음 문제가 제기된 중외공원은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비공원시설(아파트) 부지 변경을 검토하고 우선 협상 대상자(한국토지신탁)와 협의 후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면 토지 보상,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쳐 내년 6월 공원일몰제 제한 이전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마칠 계획이다.

/광주=김태수 기자 ts7080@

‘바다의 우유’ 완도 굴, 12월 해양치유식품 선정

전남 완도군이 12월의 해양치유식품으로 굴(석화)을 선정했다.

굴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분포하고, 한국에서는 모든 연안에 분포하며 주로 양식으로 생산되고 있다.

완도군에서는 주로 신지면 석화포

앞바다와 고금면에서 양식하며 연간 500t 정도를 생산한다.

굴은 ‘바다의 우유’라 할 정도로 영양이 가득하다. 단백질 함량이 10.5mg으로 우유의 2배에 해당하며, 타우린 다량 함유로 콜레스테롤 감소 및 심장

병, 피로 해소 등에 탁월하다. 셀레늄이 풍부해 인체 세포 기능 활성화와 증진속해독 기능이 우수하다. 생굴 맛을 즐기는 서양인들은 레몬을 많이 뿌려 먹는데 이는 레몬의 비타민C는 철분 흡수를 돕고 굴에 함유된 타우린 손실을 예방해주기 때문이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랑받아 온 굴은 단연 겨울철 최고별미다. /전남=김남중 기자 5555knj@